인문연구 제96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6, No. 1, pp.25~51
http://dx.doi.org/10.21211/JHUM.96.2

멜빌의 『피에르, 혹은 모호함』에 나타나는 미국적 이상주의의 정념적 잉여로서의 모호성:

흑인여성노예 문제를 중심으로*

정진만**

〈차 례〉

1. 머리말
2. 흑인여성노예로서의 이사벨을 향한 이상주의자 피에르의 정념적 잉여
   1) 흑인여성노예의 전치로서의 이사벨과 이상주의적 개혁가로서의 피에르
   2) 피에르의 이상주의 이면의 정념적 잉여: 폭력과 욕망
3. 이사벨에 대한 피에르의 구원/거리두기가 드러내는 모호성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피에르, 혹은 모호함』의 주인공 피에르가 미국의 은유라 가정하면서, 허먼 멜빌이 남북전쟁 전 미국에서 '자유의 제국'의 낙관적 비전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모호성을 어떻게 심문하는지

* 이 연구는 2021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탐구한다. 멜빌은 북부의 개혁가들의 공격성, 이들이 흑인들을 두려워해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남부의 노예소유주들의 이종혼적 욕망을 피에르에게 압축시켜 인물화한다. 이 글은 또한 이사벨이 흑인여성노예가 자리바꿈한 페르소나라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에 기초해, 이 글은 피에르의 모호하고 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동기를 그의 이상주의의 정념적 잉여라고 분석한다. 이 정념적 잉여는 지극히 성적인 성격을 머금고 심리역학적인 함의를 지닌다. 이는 피에르의 정념적 양상이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 백인남성들이 흑인여성노예를 둘러싸고 드러낸 모호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주제어: 멜빌, 『피에르』, 모호성, 정념적 잉여, 이종혼적 욕망, 이상주의

1. 머리말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피에르 혹은 모호함』(*Pierre; or, The Ambiguities*)에서 주인공인 피에르(Pierre)는 고모인 도로시아(Derothea)로부터 부친의 소형 초상화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그녀에 따르면, 이 초상화는 피에르의 부친이 프랑스에서 건너온 한 난민 여성과 성적인 탈선을 하던 젊은 시절에 그의 사촌인 랠프 윈우드(Ralph Winwood)가 그린 그림이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인다. "모든 이는, 때로 우리의 가장 훌륭한 부분도 그렇듯, 아주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쉽다. 정말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 자신에게조차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1] 여기에서 독자는 그녀가 언급하는 이

1) Herman Melville, *Pierre; or, The Ambiguities*, ed. Harrison Hayford,

불가해성이 비단 피에르의 부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설의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그의 아들 피에르의 모호함, 그리고 어쩌면 멜빌 동시대의 미국 백인남성의 모호함에 대한 것은 아닐까 의문을 던져볼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19세기의 미국 백인남성이 흑인노예 문제와 관련해 취했던 모호성이 이 작품에 어떻게 그려지며, 그런 재현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미국은 18세기 말 건국 이후, 그 출발부터 '모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했고 '자유의 제국'이라는 국가적 신조를 이상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미국의 화폐에도 등장하는 국가적 아이콘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버지니아에서 수백 명의 흑인노예를 거느리던 노예소유주로서 스스로 자유/억압의 불일치라는 모호성을 구현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글은 멜빌이 민감한 시대의식을 가지고 동시대의 미국에 존재하는 이런 심각한 불일치와 모순을 『피에르』에서 다루며 제퍼슨의 미국적 이상인 '자유의 제국'을 낯설게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미국이 노예제도의 문제와 관련해 북부와 남부가 타협할 수 없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던 19세기 초중반의 역사적 상황은 건국 이후 '자유의 제국'의 기치 아래 하나 되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던 당시의 국민주의와 일치하지 않았다. 남부의 노예소유주들은 흑인여성노예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성적) 억압과 착취의 비도덕성을 드러냈다. 자신의 흑인여성노예였던 샐리 헤밍스(Sally Hemings)와의 사이에서 적어도 여섯 명의 자

Hershel Parker, and G. Thomas Tanselle (Evanston and Chicago: Northwestern UP and The Newberry Library, 1971), p. 79.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하며, 책 제목은 간단히 『피에르』라 칭한다.

식을 둔 것으로 알려진 버지니아의 노예소유주 토머스 제퍼슨의 축첩행위도 이런 오점과 얼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2]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북부의 노예제폐지론자들도 노예제도의 폐지가 흑인들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을 아프리카로 되돌려 보내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협과 불안을 해소하고픈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들을 보여준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서두의 도로시아의 언급과 유사한 맥락에서 멜빌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미국의 이상적, 도덕적 건국이념이 흑인여성노예의 의지에 반하는 남부 백인남성들의 성적 지배, 그리고 흑인노예에 대한 북부 노예제폐지론자들의 모순적인 거리두기 같은 모호성으로 빛이 바래가는 것을 느낀 것은 아닌가?

필자는 이 글에서 멜빌의 『피에르』가 바로 그런 모호성을 다루는 소설임을 밝히려 한다. 미국 백인남성 주인공 피에르는 숭고한 구원이라는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것 이면에 그것을 손상시키는 얼룩으로서 그 구원의 대상—흑인여성노예를 구현하는 이사벨 밴포드(Isabel Banford)—에 대한 금기위반의 욕망과 그에 따른 두려움이라는 '정념적 잉여'(pathological remainder)를 노출시킨다. 필자는 그가 남북전쟁 전 백인남성들이 흑인여성노예들에게 품었던 욕망과 거리두기라는 이런 모호성을 반영하는 미국의 은유라고 간주한다. 이처럼 『피에르』에서 이상주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념적인 잉여와 얼룩에 대한 멜빌의 아이러니적 인식을 밝히는 것은 미국

2) 제퍼슨 재임시절인 1802년에 정치부 기자였던 제임스 T. 캘런더(James T. Callender)는 리치몬드 신문에 제퍼슨이 "자신의 노예들 가운데 한 명을 첩으로 두었다"고 언급함으로써 그의 축첩행위를 문제 삼았다. 1998년 11월 5일 발간된 『네이처』(*Nature*)지에는 토머스 제퍼슨의 삼촌인 필드 제퍼슨(Field Jefferson)의 자손들, 샐리 헤밍스의 첫째 아들 토머스 우드슨(Thomas Woodson)과 막내아들인 이스턴 헤밍스(Eston Hemings)의 자손의 Y염색체 유전정보를 분석한 결과 제퍼슨이 이스턴 헤밍스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이 판명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실렸다("Thomas Jefferson and Sally Hemings").

적 이상주의에 대한 멜빌의 비판적 인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더불어 이 논의는 『피에르』가 "멜로드라마적인 가족 로맨스"(Robertson-Lorant, 45)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사회정치적인 이야기임을 드러낼 것이다.

2. 흑인여성노예로서의 이사벨을 향한 이상주의자 피에르의 정념적 잉여

1) 흑인여성노예의 전치로서의 이사벨과 이상주의적 개혁가로서의 피에르

『피에르』가 출판된 1852년은 미국이 서부로의 영토팽창에 몰두한 결과 손에 넣은 지역들을 자유주로 할 것인지 노예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이다. 멜빌이 『베니토 세리노』(*Benito Cereno*)(1856)에서 흑인노예들의 선상반란에 대해 다루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동시대 작가 멜빌이 노예 문제에 대한 의식이 부재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피에르』는 『베니토 세리노』처럼 흑인 노예들을 작품에 전경화시키지 않는데, 독자는 그 당시가 전반적으로 흑인노예 문제를 소설의 전면에 드러내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3] 하지

3) 멜빌의 장인 르무엘 쇼(Lemuel Shaw)는 당시 메사추세츠주 대법원장으로서 미국의 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애초에 그는 노예제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나 1851년의 쉐드랙 사건과 토머스 심스 판결에서 구금상태의 이 두 도망노예들의 인신보호를 위한 법원출두영장 청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멜빌은 분명 1850년에 제정된 도망노예송환법을 따르는 장인의 법적 처리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노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멜빌은 자신의 장인이 흑인노예의 자유에 반

만, 멜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말한 꿈의 위장 전략처럼 에두르는 방식으로라도 분명 독자들에게 흑인노예의 문제, 특히 흑인여성노예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4] 『피에르』에서 흑인여성노예와 그녀를 구원하려는 이상주의적 개혁가는 각각 이사벨과 피에르로 인물화된다.

작품의 여러 곳에서 이사벨은 흑인, 노예,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연상시키는 인물로 그려진다. "거무스름한, 올리브 빛 뺨"(46)이란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그녀는 정체 모를 유색인의 특징을 띠고 있다. 피에르는 그런 "그녀의 눈 속에 배어있는 *누비아인의* 매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145, 강조는 필자의 것). 누비아(Nubia)가 나일강 유역의 고대 흑인기독교도 왕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벨은 흑인여성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피에르가 이사벨과 대면해 처음으로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얼굴은 이렇게 묘사된다. "젊은 시절 부친의 초상화의 미묘한 표정이 기이한 모습으로 바뀌고, 어떤 알 수 없는, 이국적인 여성다움과 이종혼적으로 뒤섞여 있다"(112). 이사벨은 피에르의 부친과 프랑스에서 건너온 이국

하는 법적 처리를 함으로써 노예제폐지론자들로부터 원성을 사던 상황에서, 흑인노예 문제를 가감 없이 자신의 문학적 소재로 다루기에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Thomas, 140).

4) 프로이트에 따르면, 잠재된 꿈사고는 억압 때문에 있는 그대로 꿈내용으로 드러나지 않고, 압축(condensation), 전치(displacement), 재현성 고려, 이차 수정의 과정을 거치며 왜곡되어 수수께끼처럼 제시된다. "꿈내용은 꿈사고가 또 다른 표현 양식으로 옮겨진 필사본과 같다"(Freud, 1953, 277)는 프로이트의 언급에서 나타나듯이, 이 꿈작용의 왜곡을 분석하는 것은 피분석자의 억압된 무의식을 가늠할 하나의 길을 제시해준다. 이 글에서 논의되는 '압축'은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합성 인물의 경우처럼 이질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Laplanche and Pontalis, 83). '전치'는 하나의 요소나 대상이 또 다른 대상으로 연상작용을 통해 자리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이트는 '압축'과 '전치'가 꿈왜곡의 두 가지 지배적 요소라고 지적하는데(Freud, 앞의 책, 308), 이 글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왜곡의 장치에 초점을 맞춘다.

적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따라서 그녀는 백인과 유색인의 피를 가진 혼혈이며, 누비아인과 결부되는 재현을 고려하면 뮬라토를 암시한다.

이사벨은 또한 비천한 노예처럼 그려진다. 그녀는 미국에서 주류일 수 없는 난민 출신으로서 이 집 저 집 떠돌며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해온 "비천한 노예상태"(138)이기에 미대륙에 들어온 흑인노예를 연상시킨다. "소의 젖을 짜고 버터를 만들며 털실을 잣고 얇은 천 조각들로 카펫을 짜는"(125) 일을 해오던 그녀는 "자신의 손의 고독한 노동"(113) 탓에 손이 노예의 손처럼 거칠다. 그녀가 떠돌던 집들은 채찍으로 매 맞는 이들이 있던 곳이며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쇳덩어리가 절꺽거리며 지푸라기에 떨어지는 소리"(119)가 들리던 곳이다. 그리고 이곳으로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이 밧줄에 묶여 오기도 하고, 죽어서 관으로 실려 나가기도 한다. 이런 재현은 그녀가 노예로 팔려와 고된 노동을 하며 폭력과 속박에 신음하다 죽어가는 흑인노예와 다르지 않았음을 내비친다.

작품 속에서 이사벨이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한 지극히 소외된 계층임을 암시하는 부분도 흑인여성노예를 연상시킨다. 그녀는 바느질, 양털 다루는 법, 털실 잣는 법 외엔 "그 어떤 것도 교육받지 못해"(123) 무지하다. 역사학자 앨런 브링클리에 따르면, "남북전쟁이 시작될 무렵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에 속했다. 북부 인구의 94퍼센트(남부 전체 인구의 58퍼센트)가 글을 읽을 수 있었다"(브링클리, 50). 이처럼 당시 미국의 낮은 문맹률을 고려하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사벨은 지극히 소외된 계층이다. 남부는 흑인의 학교교육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브링클리의 언급(같은 책, 49) 또한 이사벨이 남부의 흑인여성노예를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결국 이사벨에 대한 이런 묘사들을 모두 고려하면, 그녀는 흑인여성노예의 가면, 페르소나이다. 19세기 전반기 미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흑인여성노예가 이

사벨로 전치되어 등장한 것이다.

부친이 혼외 관계에서 낳은 사생아인 이사벨이 노예처럼 살아온 뼈아픈 이야기를 전해들은 피에르는 약혼녀 루시 타탄(Lucy Tartan)과의 행복을 포기하기로 결심한다. 이로 인해 그는 매우 친밀했던 어머니 메리(Mary)로부터 미움을 사고 글렌디닝(Glendinning) 가문의 상속도 받지 못한다. 부친이 은폐했던 충격적인 과오를 알게 된 피에르는 이제 이사벨을 구원하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라고 확신한다.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새들 메도우즈의 대저택을 떠나 뉴욕으로 나오는 그는 "급진적인 유토피아적 형제애에 전념하는"(Kelley, 103) 이상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19세기 초, 중반은 미국의 독립 이후 국가형성의 시기로서 다양한 방식의 이상주의적 움직임들이 있었다. 브링클리에 따르면,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초월적 관념론을 미국적으로 수용하고 변형시킨 랠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 조지 리플리(George Ripley)에 의해 출범이 된 브룩 농장 운동 혹은 오네이다 공동체 같은 다양한 유토피아 공동체,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한 모르몬교, 자신의 노력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뉴 라이트 복음주의, 1840년 경의 금주운동 같은 도덕개혁, 박애주의에 기초한 교도소 개혁운동, 그리고 노예제폐지운동, 여성해방운동 등이 당시 "개인과 사회의 완벽함을 추구해나가는 과정"(브링클리, 앞의 책, 44)을 잘 보여준다. 『피에르』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19세기 전반기는 역사적으로 이상에 부푼 낙관주의의 시대였고, 작품 속의 피에르 역시 "하늘을 갈망하는"(347) 이상주의자이다. 즉, 그는 도덕적 완벽주의, 초월주의, 박애주의, 노예구원의 급진적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이상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낸다.

우선, 피에르는 정체 모를 이사벨이 자신의 이복동생임을 알게

된 이후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구원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 여기는 도덕적 완벽주의를 보여준다. "당신은 내 누이이고 난 당신의 오빠입니다. 나를 알고 있는 세상이 *당신을 인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저 경멸스러운 세상을 당신 앞에 무릎 꿇릴 것이오. 나의 사랑스런 이사벨!"(160, 강조는 필자의 것). 피에르는 자신이 도덕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는데, 그가 그런 도덕적 의무를 따르려는 이유는 숭고한 의무를 실천하라는 "신격의 억제당하지 않은 분명한 외침"(174)을 듣기 때문이다. 그가 이사벨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신성한 명령"(106)을 내면의 외침으로 듣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프로이트적 의미의 '초자아'(the superego)—양심의 도덕적 기제—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그는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윤리적 의무의 요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리(*私利*)가 은근히 자신을 잠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기적이지 않은 도량이 손상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106, 강조는 필자의 것) 고민한다. 여기에서 피에르는 자신의 도덕적 행위가 루시와 자신의 행복 같은 '사리'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초월적 관념론자 칸트의 도덕법을 따르고 있다.

칸트는 시공간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롭고 보편타당한 윤리적 원칙인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당신의 의지의 준칙이 늘 동시에 보편타당한 법의 원칙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Kant, 30)—을 따를 때 순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이 순수한 실천이성에 따라 행위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의지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호, "이기심"(같은 책, 76)에 근거해선 안되는 것이다. 칸트는 이런 개인적 이해관계, 감정, 충동을 소위 '정념적인 것'(the pathological)으로 간주해서 그것을 다른 물질적, 경험적, 주관적 근거들과 함께, 자신의 도덕법에서 배제하려 했다(같은 책, 75-76). 마찬가지로 피에르도 자신이 이사벨을 구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따르기로 결심했음을 "웅변적으로"(190) 말할 때 "사리"(106)를 초월한 자신의 도덕적 의지의 순수성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나는 신에 맹세코 내가 *순수하다고* 믿는다"(191, 강조는 필자의 것). 분명 이해관계라는 개인의 기호와 성향을 초월하려는 피에르의 도덕적 의지, "세상에서 가장 고매하며 영예로운 의무"(174)를 따르는 의지는 정념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도덕법을 따르는 칸트적 주체의 것이다.

더욱이 피에르는 작품에서 칸트주의자 혹은 칸트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에머슨적 초월주의자로도 그려진다. 그가 이사벨과 새로운 삶을 꿈꾸며 머물던 뉴욕의 사도관 건물에는 "칸트의 범주론을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는"(300) 철학자들, 시인들, 신비주의자들이 함께 살고 있으며, 피에르는 이 소규모의 유토피아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초월론 철학의 영향을 받는다. 피에르의 옛 친구로서 역시 초월론 철학을 추구하는 찰리 밀소프(Charlie Millthorpe)는 피에르에게 "칸트 철학을 미국에 설파하라!"(281)고 권고한다. 멜빌 동시대에 에머슨이 많은 대중강연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설파했던 점, 그리고 그의 초월주의가 인간이란 낮은 단계의 동물적 본능을 초월해서 자신을 숭고하고 고매한 의식에 이르도록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자연 속에서 인간이 신성한 영혼과 하나 될 수 있다는 낙관주의적 믿음인 점을 고려하면(Phillips and Ladd, 34), 피에르는 인간의 완전성을 지향하는 이상주의자이다.

더불어 피에르는 "전체 인간 세계를 구하는"(281) 박애주의자로 그려진다. 그는 사생아인 이사벨을 못 본 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고매한 연민과 완전한 사랑"(101)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폴즈그레이브(Falsgrave) 목사에게 성토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생아를 잃은 델리 얼버(Delly Ulver)를 함께 구원해주어야 한다고 여기는 "자애로운"(156) 모습을 내비친다. 델리는 유부남 네드(Ned)와 혼외 관계를 통해 아기를 낳았지만 그 사생아가 죽어

괴로워하며, 주변의 혐오적 시선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살길 원한다. 피에르는 그런 그녀를 구제할 의도로 이사벨과 함께 모두 뉴욕으로 떠난다.

피에르가 대표하는 것으로서 가장 의미심장한 점은 바로 그가 노예반란 주모자였던 스파르타쿠스(Spartacus)에 비유된다는 점이다(239). 스파르타쿠스는 기원전 73~71년에 로마에 대항해 노예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한 인물이다. 멜빌이 피에르를 스파르타쿠스에 비유한다는 것은 독자에게 피에르가 투쟁적인 노예제폐지론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셰익스피어를 읽던 피에르는 『햄릿』의 구절 "시간이 혼란하고—오 저주받은 원한이여, 내가 그것을 바로잡으려 태어났구나!"(168)에 주목하는데, 이상주의적 개혁가로서의 피에르의 모습이 예견되는 것은 바로 이런 멜빌의 재현 속에서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피에르의 세계관과 도덕적 인식을 모두 고려하면, 그는 포괄적으로 19세기 전반기의 이상주의적 개혁가를 대표한다 할 수 있고, 이사벨이 흑인여성노예의 페르소나라 한다면 그는 그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박애주의자, 노예제폐지론자인 것이다.

2) 피에르의 이상주의 이면의 정념적 잉여: 폭력과 욕망

"이사벨에 대한 영원한 형제적 구원"(177)을 추구한다는 피에르는 얼핏 보면 지고지순하고 이상적인 도덕법을 따른다. 그러나 멜빌은 그가 그 이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들러붙어 있는 잉여 혹은 얼룩인 '정념적인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정념적인 것'은 칸트의 도덕론의 맥락에서 볼 때 순수한 도덕적 의지라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개인적 성향과 기호, 개인적 이해관계, 감정, 충동을 일컫는다. 사전적으로도 '정념적인 것'은 비이성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좋지 않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도 있는 “충동적인”(compulsive) 것을 뜻한다(*New Shorter Oxford*). 여기에서 ‘충동’은 심리적 차원의 공격적 충동, 그리고 금기를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칸트도 자신의 『실천이성비판』(*Critique of Practical Reason*)에서 ‘충동’(impulse)을 ‘정념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자신의 도덕법의 원리와 대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Kant, 34). 또한 ‘정념적인 것’은 사전적으로 “극단적이며, 과도하거나,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정도의”(“being such to a degree that is extreme, excessive, or markedly abnormal”) 것을 뜻하기도 한다(*Merriam-Webster's*). 이런 점에서 ‘정념적인 것’은 소위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의 범위를 초과해 그것을 위협하거나 망가뜨리는 ‘잉여’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정념적인 것’은 도덕적 완벽주의를 얼룩지게 만드는 태도와 감정을 의미하며, 그런 까닭에 이것은 이상주의의 ‘모호성’을 보여주고, 이상주의에 들러붙어 그것을 망가뜨리는 잉여가 된다.

『피에르』에서 손상된 부친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거나 그의 오점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인공의 이상주의 혹은 도덕적 완벽주의는 정념적인 것과 온전히 분리될 수 없다. 그의 이상주의 이면의 정념적인 것은 바로 부친살해의 감정, 공격성이라는 심리적 감정이다. 피에르는 부친의 젊은 시절 초상화를 불태운다. 그는 “내가 만일 대중들이 부친을 기억하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결심한다면, 이것을 파괴하라”(198)고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명령한다. 여기에서 피에르가 외설적인 아버지의 초상화를 불태워 폐기하는 것은 그가 수용할 수 없는 부친을 폭력적으로 죽이는 것과 진배없다. 피에르의 이런 면모는 프로이트의 ‘초자아’ 개념을 또다시 연상시킨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양심의 도덕적 기제인 초자아는 항상 이드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Freud, 1961, 48-49). 자크 라캉(Jacques Lacan)도 “초자아는 법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파괴”(Lacan, 102)라고 지적하는데, 이런 정신분석학적 논의

를 고려하면, 피에르의 초자아는 도덕과 그 이면으로서 본능-폭력성(공격성), 욕망-이 기이하게 공존하는 '모호성'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는 손상된 부친의 권위를 몸소 회복해야 한다는 도덕적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부친을 부정하고 상징적으로 살해하는 폭력성에 의존한다.

상징적 부친살해의 구현자 피에르는 역시 이상주의자 에머슨을 연상시킨다. "내던져진 피에르는 아버지가 없고, 과거도 없다"(199)는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일종의 부친살해를 저지른 피에르는 이제 아버지가 없기에 과거도 없으며, 따라서 자신이 기원이 되는 셈이다. 에머슨 역시 1837년의 연설문 「미국의 학자」("The American Scholar")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 배우는 우리의 의존의 시대, 우리의 도제의 시대는 끝났다"(Emerson, 58)고 선언하며 미국이 부모와 같은 유럽의 지적 토대로부터 독립할 것을 소리 높여 촉구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 존재하는 일종의 부모살해 혹은 부친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피에르는 유럽(영국)과 단절해 새로운 기원이 되려던 '미국'의 은유이다.

피에르는 폴즈그레이브 목사를 방문해 사생아를 낳고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사게 된 델리를 세상이 무정하게 모른 체하면 되겠냐고 격분해 다그친다(163). 이 때 서술자는 이상주의와 폭력성의 기이한 친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진보한 지성들이 … 이따금 그들의 등 뒤에 영구히 뒤처져 남겨진 정서와 견해들을 겨냥해 무자비하게 공격적인 행위를 하도록 자극받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166). 피에르가 사생아인 이사벨을 구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만일 세상이 그녀의 존재를 못 본 체하며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경멸스러운 세상을 당신[이사벨] 앞에 무릎 꿇릴 것"(160)이라 격앙된 채 말한다. 피에르의 이 호전적인 언급에는 그녀를 구해내기 위해 어떤 폭력적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그의 각오가 묻어난다. 이사벨이 흑인여성노예의 전치라면, 피

에르는 그녀를 구해내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기는 노예제폐지론자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에르가 노예반란을 주도했던 투사 스파르타쿠스에 비유되는 것은 이런 점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239). 역사적으로도 19세기 전반기의 노예제폐지론자들 가운데 초월주의자 시어도어 파커(Theodore Parker) 는 노예제도와 도망노예송환법을 지지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해선 안되며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여겼다(Francis, 31).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은 흑인노예 냇 터너(Nat Turner)의 반란 같은 봉기를 주도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Reynolds, 47). 그리고 처음엔 급진적인 노예제폐지운동에 대해선 미온적이었던 초월주의자 에머슨도 후에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이처럼 이상주의가 공격성이라는 정념적 이면을 갖는 문제는 리차드 H. 브로드헤드(Richard H. Brodhead)가 '공격적인 이상주의'라 표현했듯이 『피에르』의 엔켈라도스(Enceladus)에 대한 묘사에서도 드러난다(Brodhead, 188). 피에르는 하늘의 손자인 엔켈라도스가 절벽에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부딪히며 "누그러지지 않는 증오를 표출하는"(346) 모습을 꿈속 환영으로 바라보며 그와 동일시한다. 이때 서술자에 따르면, "피에르의 현재 감정, 즉 무모하게 하늘을 공격하는 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하늘의 손자[엔켈라도스]의 것이었다"(347). 부친의 초상화를 불태웠던 피에르는 자신의 기원에 대해 공격적이란 점에서 자신의 조부인 '하늘'(Coelus)을 공격하는 엔켈라도스와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피에르의 이상주의 속에는 부친살해의 폭력적 감정 혹은 부친살해의 욕망이 있으며, 이외에 또 다른 정념적 동기가 두드러지게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근친상간적 욕망 혹은 이종혼적 욕망(interracial desire)이다. 우선 피에르가 이타적으로 이복동생을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감정에는 단순히 오누이간의 순수한 형제애라기보다 근친상간적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 “피에르가 그녀에게 불타오르는 입맞춤의 도장을 거듭 찍었고”(192), “서로 뒤엉켰으며”(192), “각자가 상대방 가슴이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272)는 점, 그리고 “충동적으로 그가 자신의 두 팔로 그녀를 끌어안았다”(334)는 서술은 피에르의 근친상간적 관계를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로버트 밀더(Robert Milder)도 필자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 “성(性), 특히 근친상간은 멜빌이 제일 확실하게 이기심 없어 보이는 행위조차 더럽히는 심리적 얼룩을 보여줄 때 이용하는 수단”(Milder, 266)이라 강조한다. 그런데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피에르와 이사벨의 이런 근친상관적 관계는 이사벨이 흑인여성노예를 암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종혼적 함의를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피에르의 이종혼적 욕망, 즉 그가 흑인여성노예를 시사하는 “이사벨에게 육체적으로 이끌리는 욕망”(151)은 심리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5] 여기에서 우리는 흑인여성노예들과 성적 접촉이 빈번했던 남부의 노예소유주 백인 남성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남부의 노예소유주들은 토머스 제퍼슨의 경우에서도 드러나듯이 사회적, 법적, 문화적 측면에서 용인되고 인정되는 성적 관계—백인남성은 백인여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를 위반해, 금기시된 대상, 즉 흑인여성노예들과 성적 관계를 빈번

5) 물론 흑인여성노예에 대한 미국 백인남성의 성적 이끌림의 동기로는 경제적 동기, (성)권력적 동기도 존재한다. 우선 경제적 동기는 역사적으로 흑인여성노예와의 성관계로 낳은 자식들이 역시 노예가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백인남성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흑인여성노예와의 성적 관계가 재산증식의 이로움을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성)권력적 동기와 관련해 수전 브라운밀러의 언급에 따르면,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수동적인 여성신체—저항할 경우 죽음을 면치 못했다—가 많을수록 노예를 소유한 백인 남성은 남자다움을 과시할 수 있는 반면, 흑인 남성의 역할 개념은 축소되고 일그러졌다”(브라운밀러, 237).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백인남성주인이 흑인여성노예를 강간 등의 방식으로 지배하는 것은 그가 남성으로서의 권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다.

하게 가졌다. 당시에는 “인종 간 성교 금지, 좀 더 정확하게는 노예 소유자와 노예 간의 성행위 금지 조항은 노예 주 지역이 왕의 식민지였던 시절부터 모든 노예주의 법전에 적혀 있었다”(브라운 밀러, 252). 그런데 이런 금기는 심리적으로 그 금기를 위반하면 훨씬 더 큰 향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엄밀히 말해 환상—을 품게 만든다. 라캉에 따르면, 온전한 향유에 대한 주체의 접근이 이미 불가능한 그런 대상에 주체가 다가가지 못하도록 재차 금지시키는 ‘법’, ‘명령’의 장치는 주체로 하여금 그 금지를 위반해 장애물을 제거하면 무한한 향유(주이상스)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품게 만든다(Evans, 92). 이런 환상이 남성의 심리구조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환상은 남부의 노예소유주 남성들뿐만 아니라 북부에 사는 피에르의 것이기도 하다. 금지가 욕망을 강화시키는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북부의 피에르 역시 자유로울 순 없다.

흑인 혹은 유색인 여성에 대한 백인 남성들의 성적 이끌림은 이들의 또 다른 환상과 결합되어 더욱 강화된다. 그것은 바로 백인 남성이 모종의 내밀한 희열을 누릴 줄 아는, 즉 향유에 접근하는 지식이 있는 것으로 상상이 되는 흑인여성과 관계하면 그도 역시 무한한 본능적 희열을 느낄 것이라는 성적 환상이다. 수전 브라운 밀러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런 점을 뒷받침한다.

> 유대인 여성이 음탕하다는 평판은 남성의 관점에서 섹스판타지를 여성에게 투사한 결과 생긴 것이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 여성과 흑인여성은 공통점을 가진다. 오늘날 미국에서 흑인여성을 따라다니는 음탕하고 난잡하다는 평판 역시 유대인 여성처럼 강제로 강간당한 빈도가 굉장히 높았던 역사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189, 강조는 필자의 것)

흑인여성이 성적 쾌락의 지식이 있다고 상상하는 백인남성들의 환상 혹은 이데올로기도 어두운 피부빛의 누비아인의 매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이사벨에게 처음부터 성적으로 이끌렸던 피에르의

심리적 동기를 독자가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종혼적 욕망을 품은 피에르가 동시대의 미국 백인 남성의 욕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하면, '피에르'는 북부의 노예제폐지론자와 남부의 노예소유주가 마치 꿈작용의 '압축'처럼 결합된 인물이다. 일견 북부의 노예제폐지론자들과 남부의 노예소유주들이 대척점에 위치하지만, 멜빌의 『피에르』는 정념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양자가 결코 서로 멀지 않음을 환기시킨다. 북부의 노예제폐지론자들이 공격성으로 그들의 정념적 측면을 드러냈다면, 남부의 노예소유주들은 정념적 욕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에르는 자신의 이상주의가 공격성, 욕망과 짝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멜빌은 동시대 미국에서 서로 크게 달라 보이는 것이 정작 다르지 않기에 '낯설면서 친밀한'(uncanny) 양상을 '압축'의 기제로 피에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백인남성 피에르는 흑인여성노예라는 유색인-여성 타자에 대해 이상주의적 태도를 갖지만 그것이 정념적 동기와 분리되지 않음을 멜빌이 들춰내는 것은 그가 미국의 모호성이라는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3. 이사벨에 대한 피에르의 구원/거리두기가 드러내는 모호성

앞서 논의한 공격성이나 욕망이라는 정념적 잉여 말고도, 『피에르』는 구원이라는 도덕주의적 이상 속에 그 구원의 대상에 대해 갖는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거리두기의 심리라는 정념적 이면을 또한 제시한다. 피에르는 자신의 배다른 누이가 겪어온 불행에 연민을 느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녀를 곁에서 지키며 구원해 주리라 다짐한다(113). 주지하다시피, 이것은 피에르가 난민 여성

과 불법적 관계로 낳은 사생아를 책임지지 않은 과오를 저지른 부친을 일종의 부친살해로서 지우고 자신이 대신해서 이사벨에게 아버지 같은 구원자, 보호자 역할을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그는 북부의 박애주의자들, 노예제폐지론자들이 흑인노예를 구원해 보호하려는 온정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멜빌은 피에르의 모호한 태도를 그려냄으로써 북부의 이상주의자들이 흑인노예를 구원한다는 것 이면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려는 정념적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이사벨에 대한 두려움에 그녀와 거리를 두고 싶은 피에르의 심리는 그가 엔켈라도스와 동일시하면서 겪는 공포심에서 잘 드러난다. 하늘의 손자인 엔켈라도스는 앞에서 논의했듯이 이상/폭력(공격성)의 모호함을 구현할뿐더러 천상의 숭고함과 지상의 범속의 분리불가능성을 체화하며, 피에르는 그런 엔켈라도스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 … 천상의 거룩함이 지상의 범속함과 유기적으로 뒤섞인 피에르에게서, 역시 혼합되어있고 모호하며 하늘을 갈망하지만 아직 완전히 땅에서 해방되지 못한 또 다른 감정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감정은 땅의 어머니에게 묻어 있는 땅의 오점 때문에, 또다시 현재의 이중적으로 근친상간적인 엔켈라도스를 피에르 안에서 탄생시켰다.

> … there had been born from the organic blended heavenliness and earthliness of Pierre, another mixed, uncertain, heaven-aspiring, but still not wholly earth-emancipated mood; which again, by its terrestrial taint held down to its terrestrial mother, generated there the present doubly incestuous Enceladus within him. (347)

엔켈라도스는 비록 하늘의 손자이지만 땅의 손자 혹은 땅의 아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늘'(Coelus)과 '땅'(Terra)의 근친상간적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올드 타이탄(Old Titan)인데, 이 올드 타

이탄이 다시 자신의 어머니(Terra)와 결혼—또 다른 근친상간—을 함으로써 엔켈라도스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347). 따라서 엔켈라도스는 소설 속 표현에 따르면, "근친상간의 아들이자 손자"(347)이다. 이상과 도덕 이면의 공격성(폭력성)을 보여준 피에르가 엔켈라도스를 닮았듯이, 어머니와 이사벨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을 구현하는 피에르 역시 이중적으로 근친상간적이란 점에서 엔켈라도스와 유사하다.[6)]

피에르는 이처럼 근친상간을 구현하는 엔켈라도스와 자신이 비슷하다는 것을 불현듯 인지하고 공포에 떤다.

> 팔이 없는 타이탄의 몸통 위에, 어떤 전조가 되는 당혹감과 비애를 동반하면서 그[피에르] 자신의 것과 똑같은 얼굴과 이목구비가 그 타이탄에게서 확대되어 얼핏 보였다. 그는 공포심에 떨면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고, 실제로 자신에게 온통 고통이 되는 그 더할 나위 없는 공포로부터 정신이 깼다.
>
> on the Titan's armless trunk, his [Pierre's] own duplicate face and features magnifiedly gleamed upon him with prophetic discomfiture and woe. With trembling frame he started from his chair, and woke from that ideal horror to all his actual grief. (346)

---

6) 『피에르』의 초반부에 그려지는 피에르와 어머니의 지극히 친밀한 관계는 가족 로맨스의 근친상간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피에르는 어머니를 "메리 누나"(14)라 부르며 그녀의 목에 두른 리본을 "입맞춤으로 고정시키려 하고"(14),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동생"(14)이라 부르며 독자로 하여금 오이디푸스적 관계와 더불어 오누이의 근친상간적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이들의 관계는 향후 이사벨과 피에르의 오누이간 근친상간적 관계와 반복구조를 이룬다. 윈 켈리(Wyn Kelley)도 이와 같은 "근친상간의 패턴"(Kelley, 101)에 주목하며 피에르의 고모 도로시아가 피에르의 부친의 작은 초상화에 보여주는 남다른 경배심에도 이런 패턴이 미묘하게 존재한다고 언급한다(같은 책, 101-102).

여기에서 우리는 이사벨에 대한 근친상간적이고도 이종혼적인 성적 이끌림이 모호하고도 기이하게 그것에 대한 반발 혹은 거리두기라는, 역학적이면서도 역설적인 양상과 뒤얽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7]

심리적으로 피에르는 금지를 위반하면 자신이 그동안 구축하려던 이상적 주체의 상이 와해되거나, 쾌락에 의해 그 주체가 함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피에르는 아버지의 결함을 자신이 도덕적으로 회복해 이상적인 아버지 상을 재구축하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법적인 성적 관계—이사벨과의 근친상간적, 이종혼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과거 아버지의 결함을 반복하는 오류를 범하면 그가 의도한 온정주의적이며 이상적인 '남성가부장적 주체'는 와해되고 견디기 어려운 쾌락에 자신의 주체가 함몰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갖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이사벨과의 불법적인 관계에 반발하고, 거리를 두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 '반발', '거리두기'는 흑

7) 피에르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고 말라죽게 하는"(69) 돌풍 같은 이사벨은 여러 측면에서 '위협'이 되는 존재이다. 이사벨은 이상적인 부친의 존재에 대한 순진무구하고 알팍한 믿음이 있던 피에르의 세계를 뒤흔들어 균열을 냈으며, 궁극적으로 이상주의자 피에르에게서 인간의 도덕/폭력, 도덕/욕망의 모호함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게 만든다. 그녀는 작품 속에서 "성자 아니면 악마!", 혹은 행복이 아닌 지옥을 맛보게 해 고통을 초래한 치명적인 존재로 그려진다(360). 피에르가 이사벨이 가지고 있던 독약을 음독해 죽는 결말도 이사벨의 치명적인 측면을 충분히 부각시킨다(360). 이런 이사벨에 비해, 애초 피에르의 약혼녀였던 루시는 피에르의 모친이 며느리감으로 선호했던 가문 좋은 집안의 여성이란 점에서 당시 사회체계에서 인정받는 '좋은 대상'이다. 라캉학파 레나타 살레클(Renata Salecl)에 따르면, 남성주체는 이런 '좋은 대상'인 "안정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접근할 수 없는 연인"(Salecl, 297)—위험한 대상, 금지된 대상—과의 열정적 관계에 커다란 매력을 느끼며 거기에서 큰 향유를 얻길 꿈꾼다. 살레클은 사랑의 대상의 이런 이중화 현상에 대해 주목하면서, 신경증적 구조 속의 주체는 그 과도한 쾌락으로 인한 주체의 소멸을 두려워해 그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려 한다고 논의한다(같은 책, 302).

인여성노예라는 인종적 타자에 대한 성적 '이끌림'의 반대급부로서의 반발이면서, 동시에 흑인여성노예를 구원한다는 '이끌림'의 반대급부로서의 거리두기이기도 하다. 브룩 토머스(Brook Thomas)도 "이사벨을 향한 피에르의 연민이 그녀가 이 소설의 도입부에 나타나는 표면상 빛의 질서정연한 세계를 가로질러 전파하는 것 같은 그녀의 성(性)과 무질서에 대해 피에르가 두려워하는 것과 뒤섞여 있다"(Thomas, 142)고 논의하는데, 이런 점은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토머스는 『피에르』의 이사벨이 『베니토 세리노』에서 흑인노예 선상반란의 주모자인 바보(Babo)와 마찬가지로 법익을 박탈당했고, 새들 메도우즈의 조화를 위협하며 파괴로 끝을 맺는다는 점에서 그녀를 위협적 존재, 노예로 해석하면서, 피에르가 그녀에게 갖는 태도는 연민/공포의 양가성이라 지적한다(Thomas, 142).

작품 속에서 피에르가 '구원'이라는 동전의 앞면과 그 배후에 그 구원의 대상에 대해 갖는 공포심이라는 정념적 잉여가 서로 짝을 이루는 모호성은 흑인노예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멜빌 동시대의 박애주의적 기획들을 잘 연상시킨다. 역사적으로 19세기의 미국은 흑인들이 자유민이 되면 나태, 음주, 범죄 등 도덕적 타락에 빠져 미국사회의 질서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Fredrickson, 4, 8). 1817년에 박애주의자들과 종교개혁가들이 주도해 창립한 '미국식민협회'(American Colonization Society)의 시도는 바로 그런 두려움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 협회는 구원을 명분으로 내세워 흑인노예들을 북미대륙에서 해방시켜 다시 그들의 고향인 아프리카로 되돌려보낸 후 라이베리아(Liberia)에 식민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Fredrickson, 7). 뿐만 아니라 '보스턴 형무소 규율 협회'(the Boston Prison Discipline Society)도 1826년의 연간 보고서에서 북동부 주 소재 형무소 수감인원들의 상당수가 흑인들이라고 지적하며 그 원인이 흑인들의 퇴보한 성격에 기인한다고 결론내린다. 이런 이유로 이 형별 개혁 단체의 개혁가들은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Fredrickson, 5). 노예제도를 폐지해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되돌려 보내려는 이런 식민화의 시도들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동시대 박애주의자들의 태도를 닮았고"(Fredrickson, 8) 흑인노예의 자유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은 자유민이 될 흑인들이 백인 주류의 미국사회에 불러올 위험과 동요를 두려워했기에 그것을 회피하고 싶었던 정념적 이해관계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북미대륙에 흑인이 증가함으로써 백인중심의 국가정체성과 국가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 같은 정념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는 멜빌의 시선은 동시대의 박애주의적 개혁가들, 노예제폐지론자들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사심 없고 순수하며 숭고한 도덕적 이상만을 바라본다고 여기는 피에르적인 믿음이 보지 못하는 맹목을 직시한다.

4. 맺음말

이상주의자 피에르의 모호함을 들춰내는 정념적 잉여와 관련해, 『피에르』를 이해하는데 매우 시사적이며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피에르는 이사벨과 함께 두 점의 초상화가 마주하고 있는 한 전시관을 방문한다. 이 초상화들 가운데 하나는 저자 미상의 〈타인의 초상〉(*Stranger's Head*)으로서 충격적이게도 피에르가 예전에 불태웠던 그의 부친의 젊었던 시절 소형 초상화를 쏙 빼닮았다. 즉 이 초상화는 피에르에게 난민여성을 첩으로 삼아 사생아를 낳아 책임지지 않았던 부친의 오점을 다시 환기시킨다. 그리고 다른 초상화는 귀도 레니(Guido Reni)가 그린 〈첸치〉(*Cenci*)이다. 이 그림은 자신에게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부친인 프란체스코를 살해하려다 처형당한 이탈리아 귀족 베아트리체 첸

치를 그린 초상화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아버지의 허상, 부친살해, 불법적 욕망의 문제와 관련된 이 두 초상화가 피에르의 시야에 들어오는 장면은 부친과 피에르 본인을 통해 드러나는 이상적인 것의 결함, 그리고 피에르의 부친살해의 욕망, 이사벨에 대한 불법적인 욕망을 끈질기게 환기시킨다. 이런 점을 보면 분명 멜빌의 『피에르』는 이상주의 이면에 정념적인 것이 온전히 제거할 수 없는 '잉여'로 들러붙어 있다는 것을 주요 모티프로 삼는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피에르』는 흑인여성노예로 암시되는 이사벨을 도덕적 의지에 따라 구원하려는 이상주의자 피에르의 이종혼적 욕망과 그에 대한 반발과 두려움의 정념적인 면을 그리면서, 동시대 미국의 백인남성들이 가진 모호성을 형상화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호성은 순수한 미국적 이상주의 이면의 정념적 잉여로서의 모호성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멜빌은 『피에르』에서 가정에 얽힌 로맨스의 플롯 이면에 그것을 초과하는 '잉여'로서 사회정치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이야기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잉여'를 제시하는 방식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꿈작업의 전략과 같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피에르가 어찌 보면 멜빌 자신을 예고하는 인물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피에르』가 꿈작업의 압축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글을 맺으려 한다. 피에르는 위대하고 심오한 형이상학적 소설을 쓰고 싶었던 작가였지만 실패한다. 그런데 이런 그의 모습은 소설 『피에르』가 출판된 후 미국의 대중에게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을 예견한 작가의 자화상과 묘하게 겹친다. 단적인 예로 뉴욕의 『아메리칸 휘그 리뷰』(*American Whig Review*)가 이 작품을 "나쁜 책!"이라 평했던 것처럼(Howard and Parker, 382), 미국적 이상주의의 정념적 잉여를 주제로 동시대 미국인의 지배적 정서를 거스르는 그의 미국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당시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려던 독서대중에게 제대로 주목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Emerson, Ralph Waldo. "The American Scholar." *Ralph Waldo Emerson and Margaret Fuller: Selected Works*. Ed. John Carlos Rowe.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2003, pp. 58–74.

Freud, Sigmund. *The Ego and the Id*. 1923.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9. Trans. James Strachey. London: The Hogarth Press, 1961, pp. 1–66.

_____.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1900.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4. Trans. James Strachey. London: The Hogarth Press, 1953.

Kant, Immanuel.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1788. Trans. Lewis White Beck. Indianapolis: Bobbs-Merrill Educational Publishing, 1956.

Lacan, Jacque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 (Freud's Papers on Technique 1953–1954)*.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John Forrester.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1988.

Melville, Herman. *Pierre; or, The Ambiguities*. 1852. Ed. Harrison Hayford, Hershel Parker, and G. Thomas Tanselle. Evanston and Chicago: Northwestern UP and The Newberry Library, 1971.

2. 논문 및 단행본

브라운밀러, 수전.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박소영 역. 서울: 오월의 봄, 2018.

브링클리, 앨런.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하나의 미국—남북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황혜성 외 역. 서울: 휴머니스트, 2005.

Brodhead, Richard H. *Hawthorne, Melville, and the Novel*. Chicago and London: U of Chicago P, 1982.

Evans, Dylan.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Hove and New York: Brunner-Routledge, 1996.

Francis, Richard. "The Ideology of Brook Farm." *Studies in the American Renaissance.* Ed. Joel Myerson. Charlottesville, VA: U of Virginia P, 1977, pp. 1-49.

Fredrickson, George M. *The Black Image in the White Mind: The Debate on Afro-American Character and Destiny, 1817-1914.* Middletown, Connecticut: Wesleyan UP, 1971.

Howard, Leon, and Hershel Parker. "Historical Note." *Pierre; or, The Ambiguities* by Herman Melville. Ed. Harrison Hayford, Hershel Parker, and G. Thomas Tanselle. Evanston and Chicago: Northwestern UP and The Newberry Library, 1971, pp. 365-410.

Kelley, Wyn. "Pierre's Domestic Ambiguities." *The Cambridge Companion to Herman Melville.* Ed. Robert S. Levine. Cambridge: Cambridge UP, 1998, pp. 91-113.

Laplanche, J. and J.-B. Pontalis. *The Language of Psycho-Analysis.* Trans. Donald Nicholson-Smith.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1973.

Milder, Robert. "Melville and the Avenging Dream." *The Cambridge Companion to Herman Melville.* Ed. Robert S. Levine. Cambridge: Cambridge UP, 1998, pp. 250-278.

"Pathological."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3. CD-ROM.

_____. *The New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Vol. 2. Ed. Lesley Brown. Oxford: Clarendon, 1993.

Phillips, Jerry, and Andrew Ladd. *Romanticism and Transcendentalism (1800-1860).* New York: Facts on File, 2006.

Reynolds, Larry J. "'Strangely Ajar with the Human Race': Hawthorne, Slavery, and the Question of Moral Responsibility." *Hawthorne and the Real: Bicentennial Essays.* Ed. Millicent Bell. Columbus, OH: Ohio State UP, 2005, pp. 40-69.

Robertson-Lorant, Laurie. "Mr. Omoo and the Hawthornes: The Biographical Background." *Hawthorne and Melville: Writing a Relationship.* Ed. Jana L. Argersinger and Leland S. Person. Athens, GA: U of Georgia P, 2008, pp. 27-49.

Salecl, Renata. "Love and Sexual Difference: Doubled Partners in Men and Women." *Sexuation*. Ed. Renata Salecl. Durham and London: Duke UP, 2000, pp. 297–316.

Thomas, Brook. *Cross-examinations of Law and Literature: Cooper, Hawthorne, Stowe, and Melville*. Cambridge: Cambridge UP, 1987.

3. 인터넷 자료

"Thomas Jefferson and Sally Hemings: A Brief Account." Monticello Official Website. Thomas Jefferson Foundation, Inc. N.d. Feb 2003. https://www.monticello.org/thomas-jefferson/jefferson-slavery (검색일: 2020. 12. 15).

(투고일: 2021. 8. 10 심사완료일: 2021. 9. 16 게재확정일: 2021. 9. 24)

정진만
소속: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인문관 359호
전자우편: jmjeong@yu.ac.kr

[Abstract]

Ambiguity as a Pathological Remainder of American Idealism in Melville's *Pierre; or, The Ambiguities*: Focusing on the Issue of Black Female Slaves

Jeong, Jin-man

This essay explores how Herman Melville interrogates the ambiguities in the antebellum America that make the optimistic vision in 'the empire for liberty' questionable. by assuming Pierre—the eponymous main character in *Pierre*—as the metaphor of the nation. In Melville's characterization, the Northern reformists' aggressiveness, their fearful distancing from blacks, and the Southern slave owners' interracial desire are condensed to Pierre. This essay also assumes Isabel as a displaced persona of a black slave woman. Predicated on these assumptions, this essay analyzes Pierre's ambiguous and inner inconsistent motivation as the pathological remainder of his idealism that has sexually charged psycho-dynamic implication. This would elucidate that his pathological aspects suggest white American males' similar ambiguities surrounding black slave women in a nationwide scale.

Key words: Melville, *Pierre*, ambiguity, pathological remainder, interracial desire, idealism